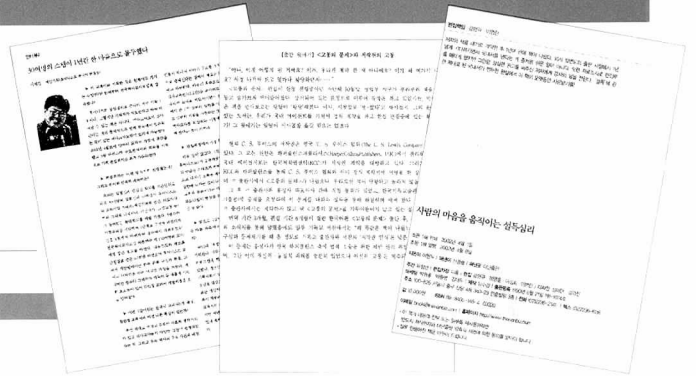


편집자들이 실명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

보도자료 · 책에 편집자 이름 건 편집자 리뷰, 기획일지 등 늘어



《깊이와 넓이 4막 16장》(휴머니스트) 서문에서 지은이 김용석씨는 “나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펴낸 책을 ‘내 책’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글은 저자의 글이지만, 책은 편집자의 책이기 때문이다”고 쓰고 있다. 책 한권이 나오기까지 저자와는 또다른 측면에서 편집자가 얼마나 책에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는 글이다.

단순히 교정자나 교열자에서 벗어나 편집자의 전문적인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다. 출판에서 기획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편집기획자로서 편집자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된 것이다. 이렇게 역할이 강조되긴 했지만 직접 편집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판권에 이름을 명기하는 일 말고는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책이나 보도자료에서 편집자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쓴 글들이 자주 눈에 띈다. 편집자 리뷰, 출간 뒷얘기, 기획일지 등 형식도 다양하다.

출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해

《전화기의 러시아 시인—희망과 좌절을 말하다》(나카무라 이스로, 정정숙, 소화) 보도자료에는 짤막한 ‘편집자의 말’이 실려 있다. 러시아 책만 만큼 편집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외교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경험을 살려 자신이 바라본 러시아와 러시아인들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영적으로 뒤집어 읽는 베드타임 스토리》(크리스 패브리, 박경옥, 흥성사) 보도자료에 실린 편집자 리뷰에는 책에 대한 편집자의 아주 개인적인 느낌이 드러나 있다. 편집자 자신이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한 뒤 독자들

에게 권하는 아주 짤막한 글이다. 흥성사에서 나온 또다른 책 《고통의 문제》(C. S. 루이스, 이종태) 보도자료에도 《고통의 문제》와 저작권의 고통’이라는 출간 뒷얘기가 실려 있다. 흥성사가 독점계약한 이 책이 다른 출판사에서 먼저 출간돼 법정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다.

흥성사의 옥명호 편집장은 “편집자 리뷰는 그 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편집자가 매체 기자에게 책의 느낌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출간 뒷얘기는 책이 나오기까지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통해 출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편집자 리뷰와 출간 뒷얘기를 보도자료에 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심리》(이현우, 더난출판) 판권 페이지에는 책임편집자 두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 있고 그 아래 편집 후기 같은 짤막한 글이 붙어 있다. 지은이와 책을 내기로 한 지 1년 만에 책이 나왔는데 외서 일번도 출판시장에서 1년을 기다려 책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네줄 정도의 글이다. 더난출판은 올 1월부터 판권을 바꾸면서 책임편집과 편집자의 말을 판권 페이지에 실기 시작했다. 이 책의 책임편집자인 강현규씨는 “책임편집자를 명기하고 편집자의 말을 실음으로써 편집자의 고민이나 기획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책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편집자로서 자기정체성 확립에 도움돼

휴머니스트의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전2권)》(전국역사교사모임) 보도자료는 무려 20

왼쪽부터 《살아 있는 한국사교과서》《고통의 문제》 보도자료, 《설득심리》 판권 페이지.

쪽이나 된다. 여기에는 편집자가 지은이를 인터뷰한 내용뿐만 아니라 책임편집자와 아트 디렉터 인터뷰, 편집에 참여한 모든 스텝들의 프로필까지 실려 있다. 이보다 앞서 출간된 《동양과 서양이 127일간 e-mail을 주고받다》(김용석 외)에는 아예 책 뒷부분을 따로 할애해 책임편집자의 기획일지를 실었다. 편집일지에는 기획, 대담, 편집과정과 편집자 개인의 고민 등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드러나 있다.

휴머니스트에서는 편집자들에게 편집일기, 독서일기를 권장한다고 한다. 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뿐 아니라 편집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편집일기에는 기획의도, 책의 핵심적인 특징, 편집하는 과정에서 남은 아쉬움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데, 이 편집일기가 책에 반영된 것이 《동양과 서양이...》의 기획일지다. 휴머니스트 김학원 대표는 “편집자들의 실명 기록이 책이나 보도자료에 반영됨으로써 독자들에게 책 한권이 연출되고 제작되는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독자들의 금금증을 풀어줄 수 있으며 그 책에 생동감을 준다”고 말한다.

김대표는 또한 양질의 본격적인 편집자 리뷰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편집자 리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기자나 전문가들의 리뷰가 중요시됐고 최근 인터넷의 영향으로 독자리뷰가 떠오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고를 채택하고 저자와 논의하고 책을 편집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근 기자